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2.04.09 (통권394호)



경제이슈

유로존 기준금리 4개월째 동결
3월 소비자물가 2.6% 상승

경영노트

최적 전략 선택을 위한 방법

사회 트렌드

‘차오포비아’는 안 된다

저널 브리프

기업 내 태블릿 도입 시 고려할 점

洗心錄

오늘을 즐겁게 살자

□ 유로존 기준금리 4개월째 동결

- 유럽중앙은행(ECB)은 독일의 인플레이션 우려와 유로존 국가들의 채무 위기 대응의 균형을 위해 4일 기준금리를 1.0%로 유지하기로 결정
 - 기준금리 동향 : 2011년 12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0%로 0.25%p 인하를 결정한 이후 4개월째 동결
 - 독일 인플레이션 우려 : 독일 근로자 임금이 20년래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작용
 - 채무 위기 :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75%로 2011년 12월의 5.79%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로존 국채시장 위기가 심각한 상황
- 부채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높은 실업률 등 하방리스크들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유로존의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

□ 3월 소비자물가 2.6% 상승

- 2012년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여 2010년 8월 이후 19개월 만에 2%대에 진입
 - 농축수산물 : 축산물의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채소류와 과일류를 중심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여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0% 상승
 - 공업제품 : 내구재의 물가는 안정세를 보였으나,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이 크게 올라 공업제품의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0% 상승
 - 서비스 : 학교급식비·보육료·대학등록금 인하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4% 상승에 그쳐 비교적 안정세를 보임
- 3월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정책 효과로 비교적 안정되었으나 비용 및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으므로 정부의 사전적인 안정 조치가 요구됨

□ 최적 전략 선택을 위한 방법¹⁾

-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최적 전략의 유효 기간이 줄어들면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최적 전략의 지속적인 수정이 요구
 - 최적 전략이란 기업이 직면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대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의미
 - 모든 기업에게 어떤 상황에서나 적용되는 유일한 최적 전략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전략 선택이 중요
 - 기업이 위치한 산업 및 지역의 속성, 산업 혹은 제품의 생명주기,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유형에 따라 최적 전략은 지속적으로 변화
- 최적 전략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은 미래 환경의 예측가능성과 대응 능력, 전략 실행에 필요한 자원의 활용 가능성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

< 최적 전략 선택을 위한 방법 >

	내 용
고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확실성이 적은 환경에서 현재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기업이 선택하는 전략 •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재 산업 내의 기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요에 기반을 두고 완전경쟁시장의 가격수용자와 유사하게 행동
적응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에 대해 예측 가능성이 낮고,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기업이 채택하는 전략 • 소매업은 수요변화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를 변화시키기 보다는 변화된 선호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것이 수익 창출의 열쇠
주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측가능성이 낮으나 전략의 실행을 통해 주어진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선택 • 인터넷 소프트웨어·서비스 산업과 같이 신산업의 초기 단계에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이나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 전략
비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현실을 변화시켜 상상 속의 미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기업의 전략 • 세금 관련 소프트웨어는 세금계산 및 자문서비스업을 파괴하여 현실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킴
생존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이 부족하여 효율성 극대화, 위험 회피 및 비핵심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 • 금융업, 자동차산업, 항공업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의해 핵심자원 과다 혹은 과소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서 사용

1) 본 자료는 bcg.perspectives의 'Why Strategy Needs a Strategy(January 2012)'를 요약 정리함

□ ‘차오포비아’는 안된다²⁾

-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피살사건으로 온라인상의 ‘차오포비아’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음
 - ‘차오포비아’란 조선족 혐오라는 뜻으로 ‘차오’는 조(朝)의 중국 발음
 - 범인이 조선족 중국인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와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는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글이 쏟아짐
 - 소셜미디어 여론 진단 사이트 ‘소셜 메트릭스’에 따르면 ‘조선족’과 관련한 트윗은 전날 108건 수준에서 7일 2800여 건으로 급증했고, 열에 아홉은 ‘무섭다’ ‘나쁜’ ‘분노’ 등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최근 미국 오클랜드 주에서 일어난 한국계 미국인의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미국 사회가 보인 반응은 한국과는 판판이었음
 -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지만 대부분의 언론과 누리꾼은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할 뿐 한인에 대한 직접적 반감을 드러내지 않음
 - 과거 조승희의 버지니아텍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미국은 “총기 소유 허가 등 미국 사회의 문제가 낳은 결과”라며 오히려 자성의 목소리를 냈음

- 누리꾼들이 보인 ‘차오포비아’는 말로만 ‘다문화’를 외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한 측면이 있음
 - 한국 사회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
 - 필리핀 출신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자스민 후보 등 외국 출신 정치인 탄생도 기대해볼 수 있는 시대가 왔음
 -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차오포비아’를 경계하고 조선족과도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임
 -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한국이 여전히 소수의 문제를 집단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 보아야 할 것임

2) “그래도 차오포비아는 안된다”(동아일보, 2012.4.9)

□ 기업 내 태블릿 도입 시 고려할 점³⁾

■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들이 태블릿 도입 시 고려 할 5가지 요인을 제시

- 글로벌 기업 중 약 25%가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업무용 컴퓨터로 이용하고 있으나 최근 무분별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
- 기업들은 태블릿을 도입하기에 앞서 우선 소수 직원들에게 배포한 후 업무 유용성 여부를 검토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음

① 업무에의 활용성 : 기업들이 태블릿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업무에 필요한 지 여부를 우선 검토한 후 구체적인 활용 전략을 수립해야 함

- 명확한 전략 없이 태블릿을 보급하면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이를 업무에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해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음

② PC와의 대체 가능성 : 태블릿이 휴대성, 직관성 등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PC의 기능을 모두 대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함

- 업무에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태블릿에서 구동되지 않을 수도 있고 PC와 태블릿간의 문서전송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음

③ 필요한 앱의 개발 여부 : 업무에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앱이 개발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해봐야 함

- 태블릿용 앱이 이미 개발되어 있어도 개발 초기 단계에 해당하여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음

④ PC와의 가격 경쟁력 : 가격 경쟁력에서 태블릿이 더 우수해보일 수 있으나 태블릿은 PC보다 교체주기가 훨씬 짧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 태블릿 교체 주기는 18개월~2년에 불과하고 무선 시스템 구축 및 앱 구입 비용까지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음

⑤ 보안 관리 가능 여부 : 기업 보안 관계자들은 보안 관리에 있어서도 기존 PC와는 다른 관리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

- PC와 달리 태블릿은 도난 시 원격으로 하드 드라이브에서 중요 자료를 삭제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안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3) '태블릿 채택 기업들의 5가지 실수'(머니투데이, 2012.04.02) 참조

□ 오늘을 즐겁게 살자

이나모리 가즈오는 《왜 일하는가》라는 저서에서 “살다보면 누구나 실패할 때가 있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 절대로 그런 현실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옳지른 물 때문에 상처는 크겠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잊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일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도 하는 것이다. 일하지 않으면 실수할 일도 없기 때문이다. 대신 지나간 일은 철저히 반성을 하되, 깨끗이 잊어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아야 한다. 안젤름 그윈의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소개되어 있다.

『기뻐하라.

오늘을 사는 기쁨은 언제 허락될까?

하루가 끝난 뒤에? 아니면 보다 먼 미래에?

당신의 기쁨과 접촉하라.

기쁨으로 당신을 가득 채워라.

기쁨을 바닥까지 실컷 맛본 사람은

신을 만지는 사람이다.』

“기쁨의 바닥을 통해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기뻐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기뻐하면서 오늘을 살자는 것입니다. 시간은 일정한 간격으로 흘러가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다. 똑 같은 시간을 미움과 시기심으로 흘려보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웃음과 사랑으로 현재의 시간을 보낸다면 기쁨으로 가득한 오늘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바람과 물결은 항상 유능한 항해사의 편에 있다.

에드워드 기번(1737-1794) : 영국의 역사가